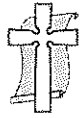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히13:12~16, 합3: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수 신 노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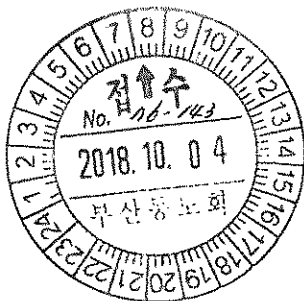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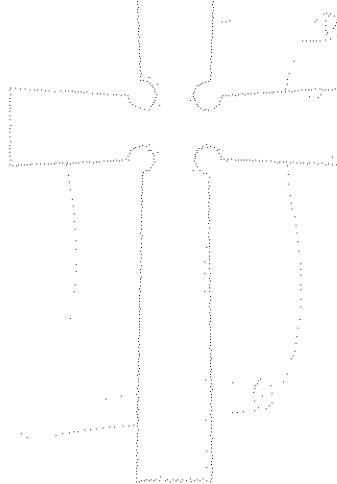
참 조 서 기

제 목 제103회기 총회 직장선교주일 성수 및 홍보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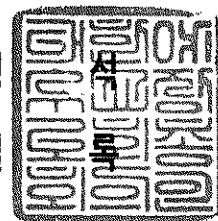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0월 3째 주일 (10월 21일)은 제85회 총회(2000년)에서 결의한 직장선교 주일입니다. 제103회기 총회 직장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직장선교 주일을 전국 교회가 지킬 수 있도록 각 노회 소속 지교회에 총회장 목회서신을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103회기 총회 직장선교주일(10월 21일) 총회장 목회서신 1부, 끝.



총 회 장 림 형
국 내 선 교 부 장 전 일



대리 이선애 총무 남윤희 사무총장 변창배

시행 국내선교부-253 (2018.10.4.)

우 03128 서울 종로구 대학로3길 29, 314호 (연지동)

전화 02-741-4353

전송 02-741-4355

/ sonyalee@pcknet.org

/ www.pck.or.kr

/ 공개

총회 직장선교주일 총회장 목회서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전국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는 10월 셋째 주일(10월 21일)은 제85회 총회(2000년)에서 제정한 직장선교주일입니다. 직장선교주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사회발전에 기여 하고, 직장선교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기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실현하는 곳이며, 청지기 사명을 발견하여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장소입니다. 특히 직장은 신앙인의 삶의 자리이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가족과의 시간보다 일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은 세속사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주일에 지역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 중심으로 ‘오는 선교’ 영역 안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보내는 선교’로 다양한 직장과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직장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그리스도인에게 부여하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마 5:13-16)의 역할을 실천하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는 직장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실천하며 공적 증언자로서 살아가도록 직장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직장선교 활성화를 위하여 교회들은 직장인들과 함께하는 정오예배와 지역 내 직장선교회를 지원하며, 노회에서는 직장선교를 전담할 수 있는 교역자를 세워 직장선교 전문화와 새로운 시대의 목회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103회 총회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히 13:12~16, 합 3:2)라는 총회 주제 아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도록 돕고, 직장선교의 방향과 정책수립, 교회들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국 노회와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직장선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국 노회와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직장 위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 10월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림형석 목사